

광주시·도시공사, 어등산 개발 우선 사업자에 '최후 통첩'

24일까지 총사업비 수용 의사 없으면 협상 종료 통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 진행...서진건설, 법정 소송 나설 듯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에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광주시 측이 의견을 제시한 최종 사업비를 서진건설 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서진건설에 "사업자 공모 지침 관련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하고,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달라"고 통보했다.

광주시 측과 서진건설 측은 총사업비 범위를 놓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 다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점은 애초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공모 지침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각각의 다른 해석 때문이었다.

광주시 측은 "공모 당시 서진건설이 관광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826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광주도시공사와 협의조정을 거쳐 4826억원을 총사업비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모 지침에는 '관광호텔'의 관광단지 시설 기준 및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비의 규모를 사업 신청자가 자율 제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호텔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억원만을 요구한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시설 사업비인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협약이행 보증금을 결정하는 총 사업비 기준이 4800억원과 200억원으로, 무려 46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광주시는 "올해 협상이 재개되면서 서진건설에

서는 공모 당시 본인들이 자율제한해 확정해 놓은 총사업비 규모를 4826억원에서 4633억원이 줄어든 193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측은 이같은 이견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총사업비 범위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상 서진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총사업비와 부대사업 범위 등에 대한 광주시와 사업시행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를 놓고 광주시와 서진측은 그동안 수차례 만나 협의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서진건설이 관광단지 내 수

익시설 등이 부대사업이라는 주장은 공모지침에 근거도 없고,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제한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실사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더라도 부대사업비가 본사업비의 24배를 초과하고 사전 절차와 요건 등이 '민간투자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서진건설 측에 24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서진건설은 이에 반발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기재부 답변을 보면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도, 광주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적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해양폐기물 자원 재활용 업무협약. 지난 20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용선 효성티앤씨 대표,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해양폐기물 자원 재활용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은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 생산과 전남도 홍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양쓰레기 중 폐플라스틱 및 페어방 분리배출 협조, 전남도는 해양폐기물 육상집하장 확대 및 분리배출 홍보, 해양폐기물 처리방법 다양화 및 자원 재활용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세계 하천·호수 전문가들 광주 모였다

22~27일 DJ센터서 세계대회

제35회 세계 하천호수학회(SIL2021)가 22일 광주김대중컨벤션에서 6일 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50개국 6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수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다.

한국의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관한 '하천 건강성 국제 워크숍', 세계적인 석학과

의 만남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수생태계 보존, 수자원 관리의 핵심 분야 학술행사와 내년 200여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강의 날' 행사 개최로 물론 한 선도시구 구축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세계하천호수학회는 1922년 설립돼 하천, 호수 습지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으며 70여 개국, 2000여 명 회원을 두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재정분권 개선 등 현안 잇단 해결...미래 성장 기틀

한전공대·여순사건 특별법 등 지역발전 관련법 통과 이끌어

전남도가 최근 정부의 재정분권 개선안을 이끌어내고, 한전에너지공대법 등 지역발전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이뤄내는 등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인구 및 재정 수도권 편중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불균형 시정 요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남해안철도·경전선 전

철화 등 기반시설 보완, 천혜의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앞세운 관광산업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 계획 반영 및 예산 지원,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등이 시급했던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수년간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제시한 1단계 재정분권 문제점과 수도권과의 재정 격차 완화 장치 마련 등 대안이 대거 반영된 것이 대표적이다.

2022년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이양사업(균특회계) 국고보전 기한이 2026년까지 4년 연장되면서 2조4000억원의 국고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민의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인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도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섬 정책의 컨트롤타

워인 국립한국심정중원을 목표에 유지, 9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남도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심정중원 설립을 정부에 제안한 지 9년 만의 성과다.

지난 3월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 분야 세계 TOP10 대학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6월 작곡식을 했으며, 올해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 후 2022년 3월 정상 개교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숙원 해결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성장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 시행해 민선 7기 '도민 제일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지방대학 위기 공동 대응 TF 구성

전남도가 최근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처에 나섰다.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은 지난달 2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대학 총장이 함께한 '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대책이다. 지방대학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다.

전남지역 주요 대학 기획처장, 도교육청, 전남도

관련 실과장, 시군협의회 대표 등 20여 명으로 이뤄졌다. 1차 회의에서는 전남도 현안을 대학, 교육청, 시·군과 공유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며 상생발전과제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경향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의 생존과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환경연구원,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23일부서 여수국가산단 등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나섰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악취가 배출기준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피해 예방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국가산단·삼일자원비축단지(2019년), 화양농공단지(2013년) 등 여수 3개 지

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악취 실태조사는 대기질과 사업장 조사로 이뤄진다. 대기질 조사는 악취관리지역 16개 지점에서 새벽, 오후, 저녁 시간대별로 복합악취 등 23개 악취물질을 조사한다. 사업장 조사는 사전에 선정된 28개 악취 배출사업장의 부지 경계선과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MG광남새마을금고

창립 44주년 기념

정기예금

1년 1.8%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최대 2.0%

대출특판

담보대출 금리 최저 2.78%~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정책자금(햇살론) 상담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예산

건설공제조합
월산사거리

전원숙 국법
광주점

광주시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특고개역 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농성빛어울림 아파트
월산동 명품반도유보아 아파트

광주시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Tel. (062) 366-8112